칼 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진정으로 빛을 얻기 위해서는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 본적이 없다." 성서에 나온 말이다. 그렇다. 언제나 빛이 이겼다. 누구나 빛을 원한다. 하지만 원한 만큼 주어지지는 않는다.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천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간절히 노력한 만큼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깜깜한 밤에 성냥불을 켜면 그 불빛만큼만 밝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늘에서 빛나는 별도 역시 자신이 빛어내는 것만큼만 얻는다. 칠흙 같은 어둠 속을 자동차를 몰고 달려보면 언제나 헤드라이트 불빛만큼만 주변이 환하다.

그 이상의 빛을 요구해봐야 결코 얻을 수 없다. 더 얻으려면 뭔가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어둠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래서 그 두려움에 지게 되면 결코 빛을 가질 수 없다.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 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구조 조정해야 한다. 구조 조정하기 위해서는 낡은 사고와 습관을 개선해 가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두려움을 갖는다. 선뜻 결정을 못한다. 생각은 갖고 있지만 실천을 못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다. 따라서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음식물도 지천으로 널려 있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요다. 하지만 병마는 훨씬 더 많다. 그 중요 원인 중 하나는 음식조절능력 부족이다.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인데도. 섭취하면 그만큼 운동 등을 통해서 소모해야 한다. 물론 한계선을 넘는 운동은 독약이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춰야 무병장수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왜 그럴까.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알면서도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습관은 고치기가 쉽지 않다. 자신의 빛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빛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진 만큼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수상이 한 유명한 말이 있다.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장에서. 그가 한 말은 반복된 단 세 마디였다. 주어진 시간은 6분이었는데도. 식장에 조금 늦게 도착한 중절모와 두꺼운 코트의 노신사. 졸업생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단상 앞으로 느릿느릿 걸어갔다. 연로하고 약간은 지쳐 보이는 듯한 그는 당당하고 꼿꼿하게 섰다. 약 1분 동안 청중들을 그윽하게 바라본 뒤 "Never Give Up!(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이라고 했다. 청중들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

그런데 그는 약 40여 초 동안 청중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런 다음 우렁찬 목소리로 다시 "Never Give Up!"이라고 외쳤다. 이때 청중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학교, 성당, 집 등을 폭격하던 때를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침묵 속에서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도 눈물을 흘렸다. 노 정치가는 마지막으로 다시 "Never Give Up!"이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그런 다음 모자와 코트를 집어 들고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 이것이 가장 짧으면서도 청중들을 뜨겁게 감동시킨 역사에 길이 남을 명연설이었던 것이다. 그렇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으로 빛을 얻기 위해서는.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기기 때문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채증은 '감시'가 아닌 '공존'의 시작입니다

경찰 채증은 단순한 촬영을 넘어,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기록'입니다.『집회등 채증활동규칙』제2조는 채증을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촬영 · 녹화 · 녹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회 · 시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집행 절차입니다.

하지만 채증에 대한 시선이 늘 우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시민들은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오거나 불필요하게 여겨질 때, 자유로운 표현에 위축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채증 영상 속에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그 관리와 활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경찰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채증 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경찰개혁 권고안 등을 반영하여, 채증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필요 없는 자료는 집회 즉시 폐기하도록 절차를 강화해 왔습니다. 채증의 전 과정은 정당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이라는 두 소중한 가치를 함께 지켜가야 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조화의 과제입니다. 채증은 이를 위한 소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집회 문화의 기반을 다지는 공공의 노력입니다.

경찰의 렌즈가 국민의 시선을 의심이 아닌 신뢰로 마주할 수 있는 사회,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민주 공동체의 미래,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모습입니다.

구례경찰서 경비안보과 순경 문가원

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음력 6월 29일)

48년생 변해진 세월에 동참을 서두르자. 60년생 없다 하는 거절로 책임을 피해 가자. 72년생 모르는 게 약 궁금함을 참아내자. 84년생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을 더해보자. 96년생 최고의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49년생 온다 했던 약속 대답조차 못 듣는다. 61년생 신명 나는 장사 덤까지 챙겨 보자. 73년생 복잡했던 감정 먼저 손을 잡아주자. 85년생 진정한 영웅 약자 편에 서야 한다. 97년생 누구라는 호칭 계급장이 달려진다.

50년생 바쁘게 하는 결정 금방 후회가 된다. 62년생 여기저기 인기 발등이 뜨거워진다. 74년생 짠내 나는 살림 낭비를 막아내자. 86년생 무모한 시도 수업료를 내야 한다. 98년생 알고 있는 내용을 실천에 옮겨가자.

51년생 고민을 짧게 단순함을 가져보자. 63년생 서운한 척 하지만 미소는 남겨진다. 75년생 속에 있는 진심을 밖으로 꺼내보자. 87년생 환해진 표정 무지개가 펼쳐진다. 99년생 부족함 투성이 혼나면서 배워가자.

52년생 찰랑이는 웃음 동심으로 돌아가자. 64년생 보람과 긍지 하늘까지 닿아진다. 76년생 거래나 흥정 기선제압이 우선이다. 88년생 제격인 자리에서 진가를 빛내주자. 00년생 우는 모습 지우고 입술을 물어보자.

53년생 소박한 잔치로 기쁨을 대신하자. 65년생 나설 때가 아니면 구경에 그쳐보자. 77년생 자랑을 숨기는 멋쟁이가 되어보자. 89년생 걱정은 그만 믿음으로 지켜내자. 01년생 먼저 하는 인사로 점수를 높여보자.

54년생 이길 수 없는 싸움 암전히 물러나자. 66년생 힘들었던 마음의 평화가 다시 온다. 78년생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다가선다. 90년생 정직한 수고 굵은 땀을 흘려보자. 02년생 살짝 아쉬워도 차선으로 돌아서자.

55년생 잘못이 없었나 되짚어 봐야 한다. 67년생 의리나 명분보다 현실과 타협하자. 79년생 불편한 지적도 귀에 담아야 한다. 91년생 꾸준한 성장으로 관심을 받아내자. 03년생 짠해지는 감동에 눈물이 보여진다.

56년생 잠조차 잊어지는 호사를 누려보자. 68년생 잔뜩 했던 기대 물음표가 그려진다. 80년생 이만하면 만족 욕심 없이 가야 한다. 92년생 고생이 끝나니 행복이 보여진다. 04년생 열심히 해왔다 목소리를 높여보자.

57년생 낯선 방문객은 귀인이 되어 간다. 69년생 백 점 만점에 백 점 만세가 불려진다. 81년생 불편함은 있어도 득 실을 따져보자. 93년생 비어 있던 곳간 채우고 넘쳐난다. 05년생 까다로운 이론과 실기를 거쳐보자.

58년생 재촉 걸음으로 빈자리를 채워주자. 70년생 푸대접을 받아도 끈기로 맞서보자. 82년생 우물 안 개구리 반성문을 써내자. 94년생 타고난 재주에 경험을 입혀보자. 06년생 분위기를 타고 사랑을 고백해보자.

47년생 좋아지고 있어도 긴장을 조여내자. 59년생 거칠고 궂은일에 솔선수범 해보자. 71년생 가는 정 오는 정 꽃 그림이 그려진다. 83년생 매맞을 각오로 할 말을 다해보자. 95년생 순서가 아니어도 앞으로 나서보자.

기 고

작은 신고가 지키는 큰 안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으며, 발생 순간부터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력이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방시설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비상구 폐쇄, 방화문 임의 개방, 소방펌프·수신반 고장 방치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닌 중대한 위법행위로, 화재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방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주민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실질적 안전대책이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다중밀집시설 전반이다. 주요 신고 행위로는 소화펌프 고장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복도·계단·피난통로 폐쇄 또는 물품 적치, 방화문·자동셔터 폐쇄·훼손, 소화수·약제 방출 방치, 수신반·감시제어반 고장·임의 조작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을 확보한 뒤 48시간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성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2회 이상 신고시 5만원 상당의 포상을 제공한다. 신고포상금은 월 최대 30만 원,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단, 허위신고, 중복신고, 소방 관련 종사자의 직무상 신고는 포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시설은 평상시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안전장치다. 소방서의 노력만으로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가족과 이웃,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를 통해 재난에 강한 사회, 안전한 보성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박은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송암 발행인 · 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 스>(062)528-4566
회 장 실 (내선)210 편 집 국 교 2001
임 원 실 (내선)207 정 경 부 교 2003
총 무 국 교 2002 사 회 부 교 2004
광 고 국 교 2006 사 업 국 교 2007
인쇄 :(주)대한칼라 본 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 · 1부700원

ex 한국도로공사 | 50 경부고속도로 50주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